

한국 고대 공장고 [Ⅱ] (韓國 古代 工匠考[Ⅱ])

林 永 周
(文化財專門委員, 傳統工藝官長)

2. 나말(羅末) 여초(麗初)의 공예(工藝)

신라(新羅)의 반도통일(半島統一)은 민족적(民族的) 통일국가(統一國家)로서의 발전(發展)을 이룩한 정치적(政治的) 의의(意義) 못지 않게 경제(經濟), 문화면(文化面)에서 민족자주적(民族自主的)인 발달을 비약적(飛躍的)으로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당(唐)나라를 비롯한 일본(日本)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빈번해졌고 종교, 학술, 예술, 기술 등을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문화발전의 새로운 기운을 이룩하였다.

신라(新羅)는 새로운 문물(文物)의 도입(導入)과 기술의 향상으로 생산(生産)이 증진(增進)됨에 따라 대당무역(對唐貿易)의 촉진을 가져왔고, 특히 민간차원(民間次元)에서 해상활동(海上活動)이 활발해져서 당(唐)-신라(新羅)-일본(日本)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고리가 형성(形成)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활약한 장보고(張保臯)의 해상활동(海上活動)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성격을 돋보이게 하였다.

이때 신라인(新羅人)들의 조선기술(造船技術)은 매우 탁월하여 일본(日本) 조선술(造船術)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당(唐)을 경유(經由)해서나 해양(海洋)을 통해 유입된 서역미술(西域美術)과의 관계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로 직접 간접으로 중앙아세아계(中央亞細亞系) 유물(遺物)들이 출토(出土), 발견(發見)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통일기(統一期)를 전후(前後)하여 신라(新羅) 고분출토(古墳出土) 유물(遺物)과 왕릉(王陵) 주변의 석조물(石造物)에서 엿보이는 서역적요소(西域的要素)를 상당한 양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서역에서 전래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믿어지는 유물(遺物)이 다수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역 원산지(原產地)의 제작품(製作品)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직접성을 가진 유물들이 신라고분출토품(新羅古墳出土品) 가운데 더러 있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최근 중앙아세아(中央亞細亞)에 관한 고고학적(考古學的) 성과(成果)에 따르면 해로(海路)에 의한 문화교류(文化交流)의 경로(經路)도 상정(想定)되고 있으므로 이때 신라인(新羅人)들이 중국을 경유(經由)하지 않고도 서역(西域)과 직접 왕래했을 경우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신라(新羅) 고분유물중(古墳遺物中)에서의 일부공예품(一部工藝品)들은 원

산품(原產品)일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은 그 유입경로(流入經路)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신라(新羅) 고분(古墳) 유물중(遺物中)에는 5세기 비단길을 통해, 중국을 통하여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앙아세아계(中央亞細亞系)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금공품(金工品)이 있어 그 의장적(意匠的) 요소(要素)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신라(新羅)의 금귀고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금공 의장기법으로 누금세공기법(鏤金細工技法)이라 하는 것은, 금사(金絲)나 금립(金粒)으로 도안하여 무늬를 수놓거나 테두리를 장식하는 기법(技法)으로 고구려(高句麗) 유물(遺物)로는 평양(平壤) 석암리(石岩理) 제9호 낙랑고분(樂浪古墳)으로 전해오는 무덤에서 출토된 서기 1세기 경의 금제대금구(金製帶金具)에서 이미 원숙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新羅)때 고분(古墳)으로서 경주(慶州) 보문리(普門理) 부부총(夫婦塚)에서 출토(出土)된 태환식(太環式) 귀고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고, 또 경주(慶州) 황오리(皇五里) 52호분(號墳)에서 출토(出土)된 태환식(太環式), 세환식(細環式) 귀고리도 신라(新羅)의 귀고리 양식(樣式)의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慶州) 황남대총(皇南大塚)은 1973년부터 '76년까지 발굴하였다. 이 무덤은 표형분(瓢形墳)으로 남(南)·북분(北墳)이 쌍(雙)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봉분의 정상(頂上) 가까이에 말 안장 한 벌이 매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라(新羅) 사람들은 말이 영혼을 신고 승천(昇天)한다는 믿음을 지녔던 것으로 짐작한다. 이 발굴 결과 남분(南墳)은 남성묘(男性墓)로서 먼저 조성(造成)되었고, 북분(北墳)은 후에 첨가된 여성묘(女性墓)임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남분(南墳)에서는 큰 칼과 금동관(金銅冠)을 착용(着用)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외에 다른 금동관(金銅冠)이 2개, 은관(銀冠) 1개가 부장품부(副葬品部)에서 따로 발견되었다. 다른 장신구(裝身具)는 금옥제(金玉製) 목걸이, 유리옥제 흉식(琉璃玉製 胸飾), 금귀고리, 금반지, 금제과대(金製跨帶) 등 다수(多數)의 장신구류(裝身具類)가 발견되었다. 목곽(木廓)안의 부장품(副葬品)으로는 마구(馬具), 무기(武具), 그리고 각종(各種) 금(金)·은(銀)·동(銅)·철(鐵)·유리(琉璃), 칠기(漆器), 토기(土器) 등이 발견되었다. 그중 주목을 끌었던 유물은 로마계(系) 유리제(琉璃製) 용기(容器)로서 이른바 봉수형병(鳳首形瓶)(높이 25cm)과 유리잔(琉璃盞) 들이다. 특히 봉수형병(鳳首形瓶)은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굵은 금사(金絲)로 칭칭 감아 붙여놓은 상태로 발견되어 그당시에 이 유리병이 매우 귀(貴)하게 취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유리병은 로마계(系), 이란계(系)의 양식(樣式)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도 서역(西域)과의 교류를 통해 신라(新羅)에까지 오게 되었던 매우 소중한 교역품(交易品)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분(北墳)에서도 「부인대(夫人帶)」라는 침각명(針刻銘)이 새겨진 은제대구(銀製帶具)라든가, 요패(腰佩)와 순금은제(純金銀製) 팔지 여러점과 태환(太環)귀고리 장식 등 상당수가 출토(出土)되었는데, 이 고분(古墳)에서 나온 순금(純金)의 총량(總量)만도 4kg이 넘는 분량이어서 신라인(新羅人)들의 금(金)에 대한 선호도와 그 지역의 금(金)생산량(生産量)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무덤에서도 유리잔(琉璃盞) 4개가 출토(出土)되었고, 중국(中國) 육조시대(六朝時代) 초기(初期)의 덕청요(德淸窯)에서 생산(生産)된 것으로 보이는 갈유자기(褐釉磁器) 소병(小瓶) 1개가 발견(發見)되어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는 최초(最初)의 중국계(中國系) 자기(磁器)로 중요(重要)하게 평가되고 있다.

유리잔(琉璃盞)은 천마총(天馬冢)(황남동(皇南洞) 155호 고분(古墳))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고분(古墳)은 '75년 발굴(發掘) 당시 천마(天馬)를 채화(彩畵)로 그려넣은 자작나

무 껍질(백화수피(白樺樹皮))로 만든 말다래(장니(障泥))가 들어 있어서 「천마총(天馬冢)」이라 이름하였다. 이 또한 신라인(新羅人)들의 승가(乘駕)의 신앙(信仰)을 믿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유물 중에는 우각형(牛角形), 각형(角形)의 칠배(漆杯)등 휘귀한 유물(遺物)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도 여러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유물중(遺物中)에서 서역적(西域的) 영향을 말해주는 작품(作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미추왕릉지구(味鄒王陵地區) 출토(出土) 금제감장보검(金製嵌裝寶劍)은 그 가운데 가장 이채(異彩)로운 것이며 그 유입경로가 주목되는 것이다.

이 검(劍)의 들레 장식은 누금기법(鍍金技法)을 쓰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이른바 낙랑고분출토(樂浪古墳出土)가 전(傳)하는 금제감장구룡문교구(金製甘醬九龍紋鉸具)의 세공기술(細工技術)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검의 형태(形態)는 7세기(世紀) 경(頃) 중앙아시아(中央亞細亞)의 Kizil벽화(壁畫)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人物)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유물(遺物)은 중국(中國), 일본(日本) 등지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고 동아시아(東亞細亞)에서 발견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라(新羅)에까지 이른 경위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흥미있는 것은 바로 이 보검의 손잡이 부분의 삼태극(三太極) 투조감옥장식(透調嵌玉裝飾)의 의장요소(意匠要素)인데, 그 문장(文章)이 지닌 의미(意味)와 그 전파 경로가 주목된다.

특히 중요(重要)한 연구과제(研究課題)는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서방(西方) 로마글라스계(系) 유리제용기(琉璃製容器)들이다. 이들이 과연 수입품(輸入品)인가, 또는 신라(新羅)에서 출산(出產)된 작품(作品)인가 하는 문제(問題)이다. 경주(慶州) 덕천리(德川里)에서 발견(發見)된 유리제조(琉璃製造) 가마터의 성분(成分)을 조사(調査)해 본 결과, 알칼리계(系)임이 밝혀졌고 그것은 중국계(中國製) 연유(鉛琉璃)의 성분(成分)과 또 다른 것이었으므로 황남대총(皇南大塚) 출토(出土)의 제품(製品)이 완전히 수입(輸入)된 것이라는 것은 규정하기 어렵고 다만 그 일부(一部)는 신라제(新羅製)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그 유물중(遺物中) 상감유리옥경식(象嵌琉璃玉頸飾)의 경우, 그 둥근 유리옥에 천인(天人)과 새, 구름 등의 문양을 청(靑)·백(白)·홍색(紅色) 등의 안료를 감입(嵌入)하여 묘사했는데 그 모티브가 이란계(系)가 요소(要素)가 엿보인다.

또 황남대총(皇南大塚) 북분출토(北墳出土) 타출귀갑문은제잔(打出龜甲紋銀製盞)의 예를 보면 기면(器面) 전체(全體)를 안쪽에서 밖으로 두드려 문양이 외부로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타출기법(打出技法)으로 귀갑문(龜甲紋)을 강상(綱狀)으로 만들고 그 속에 동물(動物), 새, 인물상(人物像) 등의 문양을 베꼈었다. 이 역시 신라(新羅)에서 모작(模作)한 것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쨌든 신라 고분미수에 나타나는 그러한 서방적(西方的) 요소(要素)는 당시에 서역(西域)과의 문화교류(文化交流)가 활발하였던 것을 시사(時事)하며, 이 때에 우리나라에도 국제적(國際的)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3. 통일신라(統一新羅)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공장제도(工匠制度)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는 주로 당(唐)나라 예술의 영향을 받은 시대로 우수한 예술품

을 많이 제작함으로써 당시의 중국, 일본 등지의 예술을 능가하였다. 그 유물(遺物)은 고분출토품(古墳出土品)과 불교(佛敎)관계인데 소재(素材)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것은 금(金)·석(石)·도토제품(陶土製品)이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종이(紙), 헝겊(絹), 나무 등 비교적 상하기 쉬운 것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사원(寺院)과 궁전(宮殿)터에서 발견된 와당(瓦當)·전(塼) 등으로 그 전모를 추측할 뿐이다.

석공예(石工藝)로는 당시 중국,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석등(石燈)을 비롯하여 석련지(石蓮池) 등 매우 조형미(造形美)를 돋보이는 석조각(石調刻) 기술(技術)을 보여주는 작품(作品)이 나타난다.

금공품(金工品)으로는 구리로 만든 범종(梵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범종은 나라의 힘을 기울여 제작한 상원사종(上院寺鐘)(725),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771)등 거작(巨作)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정교한 기술(技術)을 보여준다.

국보 제140호로 지정(指定)된 나전칠금수문경(螺鈿漆禽獸紋鏡)(지름 18.6cm, 두께 0.6cm)은 현재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라구(貝)와 호박(琥珀)을 삽입(嵌入)한 나전(螺鈿)과 청석(靑石)(터키석) 등을 장식하여 칠(漆)로써 메꾼 독특한 기법(技法)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기법(技法)의 나전경(螺鈿鏡)이 중국 당대(唐代)의 유물(遺物)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서역(西域)에서 전해진 이러한 기법(技法)이 당(唐)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은평탈보상화문경(金銀平脫寶相華紋鏡)(지름 18.2cm, 두께 0.5cm)은 8-9세기 작품(作品)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화려한 단화문(團花紋)과 당초문(唐草紋), 사슴 등을 금(金)·은(銀) 평탈기법(平脫技法)으로 시문(施文)하고 있고, 역시 같은 기법(技法)으로 된 백동금은평탈경(白銅金銀平脫鏡)(지름 15.3cm)이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같은 유물들에서 당시에 국제적(國際的)인 기술교류(技術交流)가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시대(高麗時代)는 태조(太祖)로부터 예종때까지 약 200년 간을 전기(前期), 그리고 인종(仁宗)(제17대)때부터 고려말(高麗末)까지 약 270년간(年間)을 후기(後期)로 볼 수 있다. 전기(前期) 고려(高麗) 사회(社會)는 집권적(集權的) 봉건국가(封建國家)로서의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체제(諸體制)를 갖추고 송(宋)나라를 통해 선진문화(先進文化)를 섭취하여 바야흐로 문화(文化)의 황금기(黃金期)를 이룩한 시기(時期)였다. 특히 11세기로부터 12세기 초(初)에 걸쳐 여러 부문에서 발달을 보게 되었다.

문종(文宗)때의 제도개혁(制度改革)과 문화정치(文化政治)의 실천등은 한 때 고려사회(高麗社會)의 문치적(文治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후 귀족계급(貴族階級)의 경제생활(經濟生活)은 자연히 사치와 타성에 빠져들게 되었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는 등 사회적(社會的)인 여러 가지 악성(惡性)의 요소(要素)는 후반기의 내부적, 변란(變亂)의 원인이 되었다.

고려(高麗) 때에는 특산적(特產的)인 이름을 붙인 ‘소(所)’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 은소(銀所), 동소(銅所), 철소(鐵所), 사소(絲所), 주소(紬所), 지소(紙所), 와소(瓦所), 탄소(炭所), 염소(鹽所) 등등이 있었다. 공부(貢賦)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며, 이같은 특정한 물건을 생산하는 고장 즉‘소’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바쳤으니 이를 별공(別貢)이라 하는 것이다.

건축(建築)·조각(彫刻)·단청(丹青)·기와를 만드는 일에 솜씨를 보인 공장(工匠)들

중에는 승장(僧匠)들의 역할이 컸었다.

불사(佛事)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고려자기(高麗瓷器)를 제작하는 일에도 그들의 공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일면도 있었으니, 많은 토지(土地)와 노비(奴婢)를 거느리고 고리대금으로 축재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또 많은 경비를 들여 절을 짓고, 불교행사를 마련한 것은 고려(高麗)가 기울어지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고려시대(高麗時代) 공장(工匠)의 구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민으로서 가내공업(家內工業)에서 점차 전문적(專業的) 수공업자(手工業者)로 성장(成長)한 반농반공(半農半工)으로서의 장인(匠人)이 있고,

둘째, 종전에 예속되어 있었던 장인으로서 관영공업(官營工業)에 전속되어 있던 자가 인격적으로 해방되어 임용노공(賃用勞工)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장인(匠人)

셋째, 다른 민족으로서 고려(高麗)에 투화(投化)한 소위 귀화인(歸化人)들로 구성된 장인(匠人), 즉 거란, 여진족 등 귀화인(歸化人)들로 구성된 장인(匠人) 등이다.

이들 장인(匠人)이 수도(首都) 개경(開京)에 집합(集合)하여 종사하던 관장(官匠)이 있고 혹은 지방관장(地方官匠)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서울에 집합된 공장은 경공장(京工匠)이라 하였는데 주로 군기감(軍器監), 장치서(掌治署), 잡직서(雜織署), 도교서(都校署), 내궁전고(內弓箭庫), 대악관현방(大樂管絃房) 등의 관서(官署)에 딸려 있었고 이들은 상시 봉건 귀족계급의 수요충족(需要充足)을 위해 사역(使役)되었다. 또한 지방(地方)으로부터 수시로 들림차례로 들어오는 공장(工匠)도 각기 일정한 기일 동안 관(官)에서 설치(設置)한 공업장(工業場)에서 요역(徭役)(나라에서 구실대신으로 시키는 노동)으로 공역(工役)에 종사, 제작(製作)을 맡아 하였다. 이들 공장(工匠)이 속해 있었던 분야(分野)를 세분(細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구류(武具類) 제작(製作)

① 피갑장(皮甲匠)(갑장(甲匠))

갑옷을 만들던 공인(工人)으로 경공장(京工匠)으로는 군기사(軍器寺)에 있었고, 외공장(外工匠)으로는 각도(各道)에 배속되어 일했다. 갑옷은 옛 무사(武士)들의 호신구(護身具)의 1종인데, 피갑장(皮甲匠)은 모단(毛緞)(모진(毛氈))피(皮), 장단피(獐緞皮)(누루가죽), 돈피(豚皮)(돼지가죽)등을 다루었다.

② 장도장(長刀匠)

대도(大刀)(큰칼)를 만드는 장인(匠人)

③ 각궁장(角弓匠)

소와 양의 뿔 등으로 장식한 활을 제작하는 장인(匠人), 각궁(角弓)에는 2가지가 있는데, 전쟁이나 사냥에 쓰는 것은 궁간상(弓幹桑)(궁간목(弓幹木), 즉 애기씨를 뿔나무로 깎아 낸 것), 뿔, 심줄, 아교, 칠사(漆絲) 등의 6가지로 만들었다. 또 운동이나 연악(宴樂)에 사용하는 각궁(角弓)은 궁간상(弓幹桑), 뿔, 심줄, 아교, 참나무, 대, 뱃나무 등의 7가지로 만들었다.

④ 칠장(漆匠)

제구(諸具)에 옷칠을 입히는 일을 하는 장인(匠人)

⑤ 연장(鍊匠)

쇠를 단련하여 제구(諸具)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匠人)

⑥ 전장(箭匠)

화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匠人)

⑦ 전두장(箭頭匠)

화살의 한 부분을 제작하는 장인(匠人)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⑧ 궁대장(弓袋匠)

활집을 만드는 장인(匠人)

⑨ 노개장(努箇匠)

(분명치 않음)

(2) 금속(金屬) 제작공(製作工)

① 은장(銀匠)

은(銀)은 다루어 공예품(工藝品)등을 제작(製作)하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② 백동장(白銅匠)

백동(白銅), 즉 구리, 아연(亞鉛), 니켈을 합금(合金)한 것으로 ‘백통’이라 부른다. 경질로서 백색광(白色光)이 강하므로 최상(最上)의 공예품(工藝品)을 제작하는데 쓰여졌다. 조선시대 가구 장식금구 등을 제작하던 장인(匠人)

③ 적동장(赤銅匠)

적동(赤銅)은 적동광(赤銅鑛)에서 나는 구리이며 검은 빛이 짙은 것을 오동(烏銅)이라 하고, 또 자동(紫銅)·홍동(紅銅) 등으로 불려진다.

여러 가지 그릇을 제작하거나 동전(銅錢)을 제작하였다.

④ 생철장(生鐵匠)

무쇠를 다루는 장인(匠人), 수철(水鐵), 주철(鑄鐵), 선철(銑鐵), 생철(生鐵)을 무쇠가 하는데, 그 금속 조직에는 흑연(黑鉛)이 들어 있으며, 빛이 검고 바탕이 연하다. 강철(鋼鐵)보다 녹기 쉬우므로 철조(鐵造)에 적합하므로 솥, 철판, 화로 등 각종 기구(器具)를 만드는 재료로 쓰여졌다.

⑤ 경장(鏡匠)

예전에 동경(銅鏡)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3) 피혁제조(皮革製造) 공장(工匠)

① 위장(韋匠)

군복(軍服)등의 가죽을 다루던 장인(匠人)

② 피대장(皮帶匠)

가죽띠[혁대(革帶)]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봉차서(奉車輿)에 예속되어 있다.

③ 피장(皮匠)

각종(各種) 가죽으로 물건을 제조(製造)하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봉차서(奉車輿)에 예속되었다.

(4) 직물(織物) 제조(製造) 공장(工匠)

① 금장(金匠)

잡직서(雜織署)에 속하여 특수직물의 생산을 담당하던 공장(工匠), 금장(錦匠)은 주로 비단을 짜는 직공(織工)을 일컬었다.

② 수장(繡匠)

장복서(掌服署), 즉 일명 상의국(尙衣局)이라 하여 어의(御衣)를 봉공(奉供)하는 기관에 속해서, 수(繡)놓는 일에 종사하던 직공(織工)

③ 능장(綾匠)

능직(綾織), 즉 평직(平織)을 짜는 일에 종사하던 직공(織工), 잡직서(雜織署)에 속해 있었음.

④ 나장(羅匠)

명주실로 피륙을 짜는 일에 종사하는 직공(織工), 잡직서(雜織署)에 예속되어 있었음.

(5) 마구(馬具) 제조(製造) 공장(工匠)

① 안장(鞍裝)

말안장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봉차서(奉車署), 일명 상승국(尙乘局)이라 하여 궁중(宮中)에서 사용되는 거마(車馬)를 상시 구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② 대장(大匠)

말다래[장니(障泥)]를 제조(製造)하는 일에 종사하던 장인(匠人), 봉차서(奉車署), 일명 상승국(尙乘局)에 예속되었다.

(6) 석공장(石工匠)

석장(石匠), 즉 석수(石手), 화강암이 종류인 애석(艾石)(쑥돌), 활석(滑石), 동석(凍石) 등 곱돌로 여러 가지 기구(器具), 기물(器物)을 제조(製造)하던 장인(匠人)

이상과 같이 각 관설공장(官設工匠)이 있었으며, 각 부문별(部門別)로 기술 감독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행수대장(行首大匠), 행수부장(行首副匠), 행수교위(行首校尉), 행수부위(行首副尉), 지유(脂諭), 지유부승수(指諭副承首), 지유승지(指諭承旨)등의 명칭이 있었다.

지방관공장(地方官工匠)인 외공장(外工匠)은 앞에 기술(記述)한 공장(工匠) 이외에 필공(筆工)·묵척(墨尺)·지호(紙戶)·감호(監戶)·철호(鐵戶)·유기장(諭器匠)·동기장(銅器匠)·도자기공(陶瓷器工)·대공(大工) 등의 명칭이 전한다.

이들은 독자적인 생산자(生産者)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그 대상급대(代償給代)(급료대신 주는 것)로서 매년 관례대로 보통 공납(貢納)하는 ‘상공(常貢)’과 별도로 공납(貢納)하는 별공(別貢)의 상납(上納) 부담을 가지며, 또는 ‘공장대(工匠隊)’라 하여 병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관영공업(官營工業)으로서 관부(官府)에서 직접 감독, 경영하는 직속 수공업(手工業)을 부문별(部門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공감(繕工監)

원래 장작감(將作監)이라 하였는데 1298년 충렬왕(忠烈王)(고려 제25대)때 선공감(繕工監)으로 개칭(改稱)하였다. 또 곧 선공사(繕工司)로 고쳤다가 뒤에 선공사(繕工寺)로 다시 고였으며, 1356년 공민왕(恭愍王) 5년에 장작감(將作監)으로 복구하였다.

그 후에도 1362년에는 선공사(繕工寺), 1369년에는 다시 장작감(將作監), 1372년에는 다시 선공사(繕工寺)로 고치는 등 여러번에 걸쳐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속관(屬官)의 인원과 명칭(名稱), 품계(品階)도 관서명(官署名)의 변경에 따라 변했다.

충렬왕(忠烈王) 말기(末期)에는 판사(判事)(정3품(正三品), 령(令)(종3품(從三品)), 부령(副令)(종4품(從四品)), 승(丞)(종6품(從六品)), 주부(注簿)(종7품(從七品)) 등이며, 모두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토목(土木), 영선(營繕)을 맡아 보던 관청으로 조선조(朝鮮朝)에 까지 그 제도가 이어져 왔다.

② 군기감(軍器監)

각종(各種), 병기제작(兵器製作)을 담당하는 병기공창(兵器工廠)으로서 앞서 기술(記述)한 무기류(武器類)를 만드는 공장(工匠)이 이에 예속된다. 고려(高麗) 목종(穆宗)때 설치(設置)한 것으로, 1308년(충렬왕(忠烈王) 34)에 민부(民部)에 병합되었고, 1356년(공민왕(恭愍王) 5)에 다시 설치하였다. 후에 군기사(軍器寺)로 개칭(改稱)하였다. 문종(文宗)때 기준으로 보면, 속관(屬官)에 판사(判事)(종3품(從三品)) 1인, 감(監)(정4품(正四品))1인, 소감(小監)(종4품(從四品))1인, 승(丞)(정7품(正七品))2인, 주부(注簿)(정8품(正八品))4인 등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는 감사(監史), 기관(記官), 산사(算士)가 있었다. 이 제도는 조선말(朝鮮末)까지 이어졌는데 1884년(고종(高宗) 21)에 폐지되었다.

③ 공조서(供造署)

일명 중상서(中尙署)라 하였는데 어용(御用)의 장식기구(裝飾器具) 제조(製造)를 담당하였다.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목종(穆宗)이래의 중상서(中尙署)를 공조서(供造署)라 고쳤다. 1356년(공민왕(恭愍王) 5)에 다시 중상서(中尙署)로 개칭한 뒤 몇 번 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1362년(공민왕(恭愍王) 11)에 공조서(供造署)로 개칭 조선조(朝鮮朝)에까지 계속되다가 1410년(태종(太宗) 10)에 공조(工曹)에 합쳤다.

고려(高麗) 문종(文宗)때의 관원(官員)은 령(令)(정6품(正六品)) 1인, 승(丞)(정8품(正八品)) 2인, 이속(吏屬)은 이(吏)6명, 기관(記官) 2명, 산사(算士) 1명이 있었으며, 공장(工匠)으로는 소목장(小木匠), 홍정장(紅靛匠), 주홍장(朱紅匠), 조각장(彫刻匠), 나전장(螺鈿匠), 칠장(漆匠), 화장(花匠), 지장(紙匠), 주렴장(珠簾匠), 어개장(御蓋匠), 황단장(黃丹匠), 소장(梳匠), 마장(磨匠) 그리고 화업(畫業) 등이 예속되어 있었다.

④ 장야서(掌冶署)

고려(高麗) 때 철공(鐵工), 야금(冶金), 금속공예(金屬工藝) 분야(分野)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데, 문종(文宗)때 설치(設置)되어, 1308년(충렬왕(忠烈王)34)에 영조국(營造局)이라 개칭(改稱)하였다. 그러나 다시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장야서(掌冶署)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1391년(공양왕 3)에 공조(工曹)에 병합되었다.

문종(文宗)때에는 령(令)(종7품(從七品))2명, 승(丞)(정8품(正八品)) 2명의 관원(官員)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4명, 기관(記官) 4명, 산사(算士) 2명이 있었고, 영조국(營造局)으로 바뀐 후에는 사(使)(종5품(從五品)), 부사(副使)(종6품(從六品)), 직장(直長)(종7품(從七品)) 등의 관원을 두었다.

⑤ 도교서(都校署)

고려(高麗) 때 세공(細工)을 맡아보던 관청. 특(特)히 목공업(木工業)·석공업(石工

業)· 조각장(彫刻匠)· 석장(石匠)· 장복장(粧覆匠)· 이장(泥匠)등의 전문적(專門的)인 기술인(技術人)이 여기에서 일하였다. 이 기관은 고려초(高麗初)부터 있었으며 1308년(충선왕(忠宣王) 즉위)에 잡작국(雜作局)으로 개칭(改稱)되었다가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다시 도교서(都校書)로 복칭되었는데, 1391년(공양왕(恭讓王) 3)에 선공사(繕工寺)에 병합되었다.

문종(文宗)때의 이에 예속되었던 관원(官員)은 령(令)(종8품(從八品)) 2인, 승(丞)(정8품(正八品)) 4인이었고, 이속(吏屬)은 감작(監作)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기관(記官) 2인이었다.

⑥ 장복서(掌服署)

고려(高麗)때 어의(御衣)의 상납(上納)을 맡던 관청, 원래 목종(穆宗) 때부터 상의국(尙衣局)이라고 부르던 것을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恭愍王) 5)에 상의국(尙衣局)으로 복구, 1362년에 다시 장복서(掌服署)라 했고, 1369년에 또 상의국(尙衣局)으로 환원, 1372년에 장복서(掌服署)로 개칭(改稱), 1391년(공양왕(恭讓王) 3)에 결국 공조(工曹)에 병합되었다.

이 기관에는 수장(繡匠), 복두장(僕頭匠), 화장(靴匠), 대장(帶匠), 화장(花匠), 피화장(皮靴匠), 홀대장(笏袋匠) 등이 예속되었다.

⑦ 도염서(都染署)

고려(高麗) 때 염색(染色)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 문종(文宗) 때 설치, 속관(屬官)으로 령(令)(정8품(正八品)) 1인, 승(丞)(정9품(正九品)) 2인을,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忠烈王) 34)에 잡직서(雜織署)를 병합, 직염국(織染局)으로 개편, 선공사(繕工寺)에 속했다가,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다시 도염서(都染署)로 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왕조(朝鮮王朝)때에 와서도 계승되었다.

궁중의 어용(御用) 염료(染料)의 제조(製造) 및 염색(染色)을 맡아하던 곳으로 염료공(染料工)과 염색공(染色工)이 예속되었다. 염료(染料)는 특수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염료(天然染料)로, 그 종류(種類)를 보면 주황(朱黃)·담황(淡黃)·자(紫)·단(丹)·비(緋)·람(藍)·녹(綠)·청(靑)·오청(烏靑) 등이었다.

⑧ 잡직서(雜織署)

고려(高麗) 때의 관청. 문종(文宗) 때에 설치,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관원(官員)은 령(令)(정8품(正八品)), 승(丞)(정9품(正九品)) 각 2명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는데 1308년(충렬왕(忠烈王) 34)에 잡염국(雜染局)으로 개칭(改稱), 도염서(都染署)에 병합되었고, 그 후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독립하여 잡직서(雜織署)로 되었다. 여기에는 금장(錦匠), 나장(羅匠), 능장(綾匠), 견장(絹匠) 등 특수 직물공이 예속되어 있었다.

⑨ 액정국(掖庭局)

고려(高麗) 때의 관청. 왕명(王命)의 전달(傳達)이나 왕(王)이 사용(使用)하는 붓과 벼루, 궁궐의 열쇠, 궁궐의 견직(絹織)등을 비롯하여 궁중안의 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곳으로 처음에는 액정원(掖庭院)이라 하다가 995년(성종(成宗) 14)에 액정국(掖庭局)으로 고쳤다.

문종(文宗) 때에 내알자감(內謁者監)(정6품(正六品)) 1명, 내시백(內侍伯)(정7품(正七品)) 1명, 내알자(內謁者)(종8품(從八品)) 1명 등 관원(官員)과 이속(吏屬)으로 감작(監作) 1명,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給仕) 각 3명을 두었으며, 내전(內殿)에 승

반(崇班)(정8품(正八品))(4명, 동두공봉관(東頭供奉官)(중7품(從七品)) 4명, 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중7품(從七品)) 4명, 좌시금(左侍禁)(정8품(正八品)) 4명, 우시금(右侍禁)(정8품(正八品)) 4명, 좌반전직(左班殿直)(중8품(從八品)) 4명, 우반전직(右班殿直)(중8품(從八品)) 4명, 전전승지(殿前承旨)(정9품(正九品)) 8명을 두었고, 전전부승지(殿前副丞旨),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부내승지(副內丞旨) 등을 두었다. 1116년(예종(睿宗) 11)에는 전전승지(殿前承旨)를 삼반봉직(三班奉職), 전전부승지(殿前副丞旨)를 삼반차직(三班借職),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副內丞旨)를 삼반차차(三班借差)라 불렀다.

1308년(충렬왕(忠烈王) 34)에 액정국(掖庭局)은 내알사(內謁司)로 개칭(改稱), 백(伯-정3품(正三品))·영(令-중3품(從三品))·정(正-정4품(正四品))·부정(副正-중4품(從四品))·복(僕-정5품(正五品))·알자(謁者-중5품(從五品))·승(丞-정6품(正六品))·직장(直長-중6품(從六品)) 각 2명·내전승반(內殿崇班)(정7품(正七品))·동두공봉관(東頭供奉官)(중7품(從七品))·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중7품(從七品))·우시금(右侍禁)(정8품(正八品))·좌시금(左侍禁)(정8품(正八品))·우반전직(右班殿直)(중8품(從八品))·좌반전직(左班殿直)(중8품(從八品))·내반종사(內班從事)(중9품(從九品)) 각 4명을 두었다가 곧 관칭이름을 액정국(掖庭局)으로 환원,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향정국(巷庭局)으로 고쳤다가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액정국(掖庭局)으로 환원하였다.

여기에는 금장(錦匠)·나장(羅匠)·능장(綾匠)·견장(絹匠)등의 직공(織工)도 예속되어 있었다.

⑩ 봉거서(奉車暑)

고려(高麗) 때의 관칭으로 궁중(宮中)의 연여(輦輿)(가마 등속)·승마(乘馬)를 맡아보던 기관이다.

1310년(충선왕(忠宣王) 2)에 목종(穆宗) 이후의 상승국(尙乘局)을 봉차서(奉車暑)로 개칭(改稱)하면서 그 으뜸 벼슬인 봉어(奉御)(정6품(正六品))을 령(令)으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恭愍王) 5)에 다시 상승국(尙乘局), 1362년(공민왕(恭愍王) 11)에 봉거서(奉車暑), 1369년(공민왕 18)에 도로 상승국으로, 또 1372년(공민왕 21)에는 다시 봉거서로 바뀌는 등 여러번에 걸쳐 명칭이 번복되었다. 1390년(공양왕(恭讓王) 2)에 중방(重房)에 병합시켰다.

문종(文宗)때의 관원을 봉어(奉御) 1명, 직장(直長)(정7품(正七品)) 2명, 이속(吏屬)은 서령사(書令史) 4명, 승지(承旨) 5명이었다.

여기에는 대(大)침장(匠)·안피장(鞍皮匠)·피장(皮匠) 등이 예속되었었다.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 第33 雜誌 2 色服
- <海東釋史> 第34 朝貢 2 物産志
- 趙璣濬, 「韓國經史」
- 金宰基, 「東方文化 交流史論」 8.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劉敎聖, 「韓國商工業史」(韓國文化史大系, 3편)



사진 1. 波狀文琉璃杯 높이 12.7cm 굵 4.3cm

사진 1. 파상문유리배(波狀文琉璃杯) 높이 12.7cm 굵 4.3cm
 경주(慶州) 98호 고분(古墳) 남분출토(南墳出土) 신라시대(新羅時代) 6-7세기



사진 2.
 琉璃製盥 높이 6cm 굵 9.3cm

사진 2. 유리제완(琉璃製盥) 높이 6cm 굵 9.3cm



사진 3. 琉璃杯 높이 9.3cm

사진 3. 유리배(琉璃杯) 높이 9.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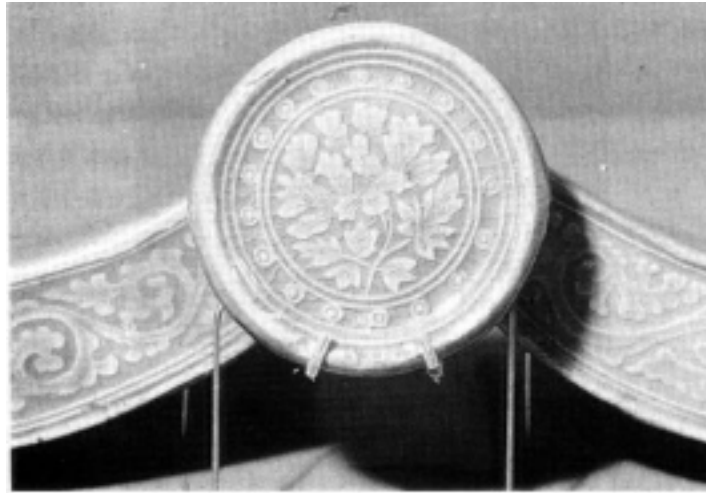


사진 4. 靑磁陽刻瓦當 高麗時代 12세기경 全南 康津 砂堂里 靑磁窯址

사진 4. 청자양각와당(靑磁陽刻瓦當) 고려시대(高麗時代) 12세기경 전남(全南) 강진(康津) 사당리(砂堂里) 청자요지(靑磁窯址)



사진 5. 靑銅銀入絲香爐 高麗時代

사진 5. 청동은입사향로(靑銅銀入絲香爐) 고려시대(高麗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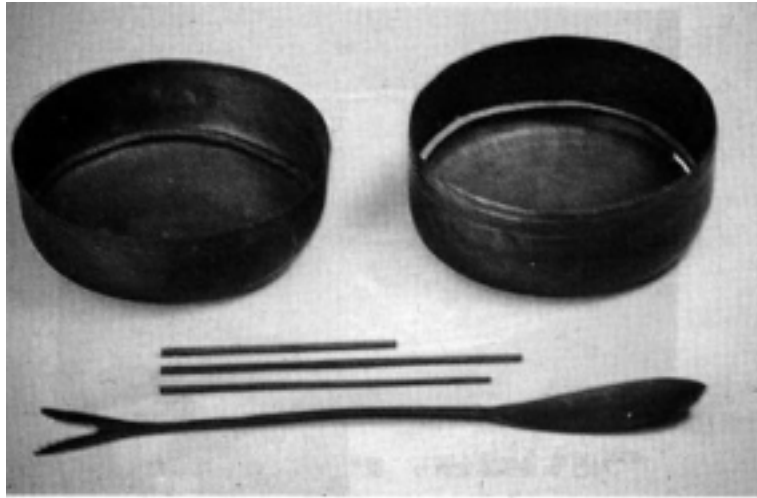


사진 6. 청동제箸 및 청동제시합 高麗時代 13세기(安東 太師廟 三功臣 遺物)

사진 6. 청동제저(靑銅製箸) 및 청동제시합(靑銅製匙盒)
고려시대(高麗時代) 13세기(안동(安東) 태사묘(太師廟) 삼공신(三功臣) 유물(遺物))



사진 7. 금제루금감옥 新羅時代 慶州 98호 北墳出土

사진 7. 금제루금감옥(金製鏤金嵌玉)
신라시대(新羅時代) 경주(慶州) 98호 북분출토(北墳出土)



사진 8. 金製鍍金嵌玉 慶州 98호 古墳 北墳出土
지름 7.2cm~7.5cm 新羅時代

사진 8. 금제루금감옥(金製鍍金嵌玉) 경주(慶州) 98호 고분(古墳) 북분출토(北墳出土)
지름 7.2cm~7.5cm 신라시대(新羅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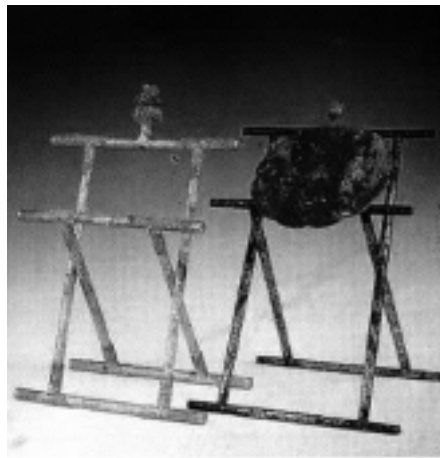


사진 9. 銅鏡架 고려시대 12~14세기
높이 56.0cm 琉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 9. 동경가(銅鏡架) 고려시대 12~14세기
높이 56.0cm 유(琉)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 10. 靑銅銀入絲淨瓶 고려시대
12세기 높이 35.0cm

사진 10. 청동은입사정병(靑銅銀入絲淨瓶)
고려시대(高麗時代) 12세기 높이 35.0cm



사진 11. 금제옥감장보검(金製玉嵌裝寶劍) 경주미추왕릉출토(慶州味鄒王陵出土)
7세기경 길이 3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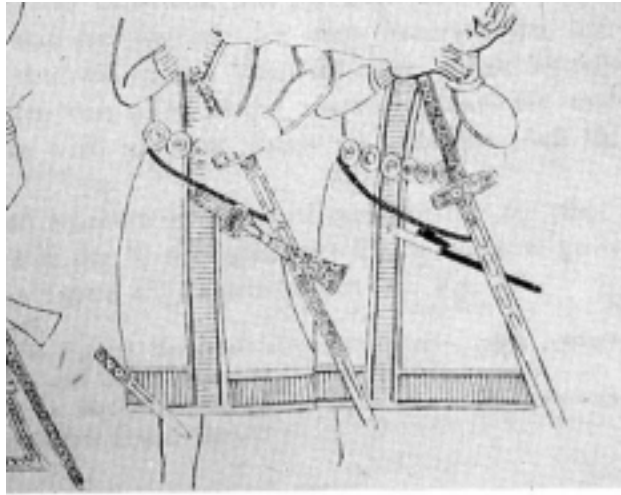


사진 12. 기질 189窟壁書中 供養像이 寶劍을 차고있는 모습

사진 12. 기질 189굴벽서중(窟壁書中) 공양상(供養像)이 보검(寶劍)을 차고 있는 모습